

## 히브리어 문법책(1) :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조용현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작년 한때 영어몰입교육 논란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옹고 그림을 떠나 그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화되었던 모습은 영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 준 단면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기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외국인들의 유창한 발음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그 능력을 인정받는 세태 속에서 과연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언어란 “음성 또는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의 사상·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체계”이다.<sup>1)</sup> 그러므로 언어의 본래 목적은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이 세상과 자기 백성에게 표현하시고 전달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성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학습해야 하는 당위성이 발견된다.

1) 민중국어사전, “언어.”

그런데 성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언어가 아니라  
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만약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현재에도 사람  
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일반 외국어 학습 과정과 같이 듣고 말하고 읽  
고 쓰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  
라어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리스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와는 많은 면  
에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학습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려는 데 있지 않고 구약성경  
과 신약성경을 읽으려는 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어(口語)가 아  
닌 문어(文語) 학습을 위해 문법 연구는 성경읽기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문법은 “언중(言衆: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 즉 언어공동체)이 언  
어를 구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정보의 집합, 또는 그 언어의 문법  
현상을 기술(記述)한 것, 즉 특정한 시대의 특정언어 내부에 숨어 있는 체  
계”로 정의된다.<sup>2)</sup> 그러므로 문법은 해당 언어보다 먼저 형성될 수 없으며  
선행하는 언어를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성경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이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어와 헬라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문법들이 발달하  
게 되었다. 결국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  
서는 히브리어 문법 지식도 필요하다. 이번 호부터 중요한 히브리어 문법책  
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이다.

### 1. 게제니우스의 생애<sup>3)</sup>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빌헬름 게제니우스(Heinrich Friedrich Wilhelm

2) 두산백과사전, “문법.”

3) J. W. Rogerson, “Gesenius, Heinrich Friedrich Wilhelm,” John H. Hays (ed.)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United States: Abingdon, 1998), 445.

Gesenius)는 1786년 독일의 하노버에서 태어나 헬름슈테트대학교와 괴팅겐대학교를 수료하고, 1810년에 할레대학교 신학 교수가 되었다. 합리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교수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다. 게제니우스는 신학 교수였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편찬자와 히브리어 문법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1807년에 히브리어-독일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1810년에 1권이, 1812년에 2권이 각각 출판되었으며 1813년에는 히브리어 문법책이 출판되었다. 사전과 문법책 모두 판을 거듭하며 간행되었고 영어로 번역되었다. 1829년부터 *Thesaurus philologicus criticus*(1853년 뢰디거[E. Rödiger]에 의해 완성됨)가 출판되기 시작했고, 로빈슨(E. Robinson)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사전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BDB 사전의<sup>4)</sup> 기초가 되었다. 히브리어 문법책 또한 사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sup>5)</sup> 히브리 성경의 저자와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게제니우스는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던 드 베테(W. de Vette)의 견해를 따랐다. 히브리 성경에 대한 게제니우스의 가장 중요한 책은 『히브리 언어와 필적의 역사』(*Geschichte der hebräischen Sprache und Schrift*, 1815)와 『이사야 주석』(*Philologisch-kritischer und historischer Commentar über den Jesaja*, 2 vols., 1820-21)이다. 『이사야 주석』은 신학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언어학적이고 역사적인 작품이다.

게제니우스는 강의 시간에 교회 전통에 충실한 학생들을 가리켜 조잡하게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치부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1830년에 이성주의자로 공개적인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게제니우스는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언어학 및 역사 연구의 중요성과 본질

4)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ased on the lexicon of William Gesenius, as translated by Edward Robinson; and edited with constant reference to the thesaurus of Gesenius as completed by E. Rödiger, and with authorized use of the latest German editions of Geseniu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07).

5) 자세한 과정은 '2. 편찬 과정'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을 가르친 학자로, 또한 현대 히브리어 사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셈어 언어학 연구를 통해 19세기 이후 성서신학이 만개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든 학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2. 편찬 과정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원제 *Hebräische Grammatik*)은 1813년 할레(Halle)에서 출판된 이후로 수많은 개정과 변화를 겪었다. 그는 열세 번의 판(edition)을 내놓았고, 그의 제자 뢰디거가 14판부터 21판까지(1845-1872) 내놓았으며, 에밀 카우치(Emil Kautzsch)가 22판부터 28판까지(1878-1910)를 내놓았다. 최초의 축약판은 1896년에 나왔으며 그것의 2판은 28판과 동시에 출판되었다. 『게제니우스-카우치 히브리어 문법』(*Gesenius - Kautzsch Hebrew*)의 연습 문제집인 *Übungsbuch* 초판은 1881년에, 6판은 1908년에 출판되었다. 코울리(Arthur Ernest Cowley)가 작업한 최근의 영어판은 카우치의 마지막 28판을 기초로 작업된 것이다.<sup>6)</sup> 그는 서문에서 독일어 원서의 구도와 배열을 엄격히 지켰기 때문에 장과 단락의 참조 번호는 독일어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sup>7)</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사람이 저술한 책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28회나 개정·증보되고 그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떠나 그 책이 갖는 학문적 중요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 역시 히브리어와 문법에 대한 전반에 걸친 언어 현상들을 폭넓게, 또한 명료하고 적절하게 기술했다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문법책을 독일어판과 영어판으로만 봐야했던 안타까움이 2003년에 해결되었다. 신

6)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책의 영어 번역판의 원제는 *Gesenius' Hebrew Grammar*인데 보통 게제니우스(*Gesenius*), 카우치(*Kautzsch*), 코울리(*Cowley*)의 첫 글자를 따서 'GKC'로 표기한다.

7) W. Gesenius, *Gesenius's Hebraische Grammatik*, 신윤수 역,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vii.

윤수 목사가 본서의 초판이 나온 지 190년, 28판이 나온 지 94년, 영어 번역판이 나온 지 93년 만에 한국어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독자들도 게제니우스의 히브리어 문법책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3. 목적

비록 게제니우스가 이 문법책을 왜 저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28판을 기록한 카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목적에 대해 알 수 있다. 특별히 그는 28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 특히, 구약 문헌이 형성된 기간인 약 일천년 동안에 매우 큰 변화가 이루어 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책무는 마소라 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형태에 나타난대로의 언어를 기술하는 것이다. … 보다 이전 단계의 발전 과정에 관한 논의는 히브리어 문법의 영역이 아니라 셈어 비교 언어학의 영역에 속한다.<sup>8)</sup>

게제니우스가 훌륭한 셈어 학자였고 그의 제자 카우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책은 셈어 비교 언어학의 영역이 아닌 히브리어 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이며,<sup>9)</sup> 더 구체적으로는 마소라 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준 형태의 히브리어다. 카우치도 언급했듯이 구약성경의 문헌들이

8) 위의 책, x.

9) 히브리어라는 명칭은 대체로 구약성경에 사용된 언어를 가리키는데 성경 이후 시대 유대인 문헌의 언어인 신히브리어(New Hebrew)와 구별하기 위해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 혹은 성서 히브리어(Biblical Hebrew)라고 부른다.

형성된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짐작되지만, 그것은 다른 셈어와의<sup>10)</sup> 비교 연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책이 추구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의 문장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구약 성서라는 좁은 한계 내에서도 히브리어의 실질적인 성장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비교 언어학에 기초하여 그러한 성장을 기술하는 역사적 히브리어 문법 (historical Hebrew grammar)을 구축하려는 Beer의 의도(*ThLZ*, 1904, col. 314 f)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할 수 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료들은 게제니우스 문법책의 신판에서 진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eer가 그러한 자료들로 인해서 ‘역사적 문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가 이러한 자료들을 과대 평가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견해로는 그러한 역사적 차이점들은 마소라 학자들의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대부분 소멸되어 버렸다.’”<sup>11)</sup>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은 비교 언어학에 근거하여 구약성경 내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거쳤는지를 밝히려는 역사적 히브리어 문법과는 거리를 두는데 그 이유는 마소라 학자들이 그러한 변화들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2)</sup> 그러므로 게제니우스의 문법책은 성서 히브리어 문법에 그 연구 영역이 한정되어 있고, 문법 연구의 역사에서 보면 방법은 비교-역사 문법(comparative-historical grammar) 이전에 해당된다.

10) 히브리어는 서부 아시아의 큰 어족에 속하는 한 분파로서 그 어족은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앗수르 및 아라비아의 토착 언어였다. 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을 가리켜 셈어라고 한다. 히브리어는 셈어 중에서도 북서부 셈어에 속한다.

11) W.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x.

12) 마소라 학자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조용현, “히브리어 성경: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판(2),” 『성서마당』 84 (2007년 겨울), 123-26.

#### 4. 구성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개관으로 셈어 개관, 히브리어 역사 개관, 히브리어의 문법적 취급, 문법 구성과 배열을 다루고 있다. 셈어 학자답게 게제니우스는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셈어의 분파 및 그 특징들을 자세히 개관하고 있다. 히브리어가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를 성서 히브리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또한 히브리어를 문법적으로 다룬 일례들을 칠십인역의 번역부터 당대까지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문법서의 구성과 배열을 다른 모든 언어들처럼 음과 음절, 단어, 문장, 즉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으로 나누어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두 번째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어 문법 설명에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음운론이다. 음운론에서는 주로 기본 원리인 발음과 문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낱글자와 발음에 대해서 다루고 문자들의 특징과 변화인 음절과 강세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법 책에서는 간략히 다루기 때문에 음운론은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는 초급자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특히 모음의 장단과 변화, 강세의 변화는 동사 및 명사의 변화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형태론 혹은 품사론이다. 우리말사전에 따르면 형태론은 “형태소의 특성과 그 배합 관계, 단어의 어형(語形) 변화 등을 다루는 문법학의 한 부분”으로<sup>13)</sup> 품사론은 “문장에 쓰인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그 의미·형태·기능 등을 연구하는 문법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sup>14)</sup> 이러한 정의에 맞게 이 부분은 어간과 어근, 문법적 구조를 먼저 다루고 대명

13) 민중국어사전, “형태론”

14) 민중국어사전, “품사론”

사, 동사, 명사, 불변사 등 품사별로 나누어 각 품사의 문법을 다룬다. 특히 히브리어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사는 강동사와 약동사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된다.

마지막 부분은 구문론이다. 구문론은 통사론(統辭論)이라고도 불리는데 “문장의 구조나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기능과 배열 따위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sup>15)</sup> 그러므로 이 구문론 부분은 각 품사나 단어보다는 그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문장을 한 단위로 다루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문론은 세부적으로 품사 구문론과 문장론으로 나뉘며 품사 구문론은 다시 동사의 구문, 명사의 구문, 대명사의 구문으로 나뉘며, 문장론은 문장론 일반과 특수한 문장들로 나뉜다.

부록 부분에는 패러다임, 주제 색인, 히브리어 낱말 색인, 성구 색인, 라틴어 색인이 있다. 부록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특히 마지막 라틴어 색인은 독어판과 영어판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말 번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 5. 특징

『계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히브리어 중·고급 사용자를 위한 책이다. 사실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거나 히브리어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히브리어를 배우고 익히기 위한 자습서의 성격도 분명히 아니다. 흔한 예로 초급 히브리어 문법책에는 각 과마다 연습문제나 단어 모음이 있지만 이 책에는 없다. 또한 해당 문법 설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가 주를 이루는 초급 히브리어 문법책과 달리 이 책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물론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며 해당 문법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기록되

15) 민중국어사전, “구문론”



어 있다. 그러므로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은 중급 이상의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거나 히브리어 성경책을 읽으며 보다 자세한 문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일종의 문법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의 방대한 양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초급 문법책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얻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해당 구절에 대한 문법을 참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다.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신운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제니우스의 문법책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사전과 더불어서 늘 곁에 두고 참조해야 할, 말하자면 동반자(vade mecum)와 같은 존재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문법 사항을 참고하고 싶다면 부록에 있는 성구 색인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에 해당하는 목록을 보고 해당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sup>16)</sup>

둘째, 히브리어 문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명료하고 폭넓게 다룬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히브리어 문법책은 음운론을 간단히 다룬 다음 주로 형태론에 치중하며, 구문론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책이 염두에 둔 대상이 초급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분명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은 한 언어의 문법을 이루는 세부적인 부분들로 서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음운론에서 다루어지는 음절과 강세의 변화는 형태론에서 각 품사들의 곡용(曲用)과 활용(活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러한 곡용과 활용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사와 그 형태가 문장 가운데서 맡은 기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문론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이 모두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sup>17)</sup> 그중에서도 구문론은 실

16) W.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851.

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동사의 완료 용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완결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흔히 과거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의 “§ 106 완료의 용법”을 보면 과거 중에서도 본래적 완료와 역사적 시제, 과거완료로 나뉘고, 또한 현재와 미래의 행위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됨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경구절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 6. 평가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은 대개 “표준적인 히브리어 문법 참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9)</sup>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서 히브리어의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전반에 걸친 언어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독자들이 색인을 통해 쉽게 이용하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1813년 초판 이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27회 개정되면서 많이 수정되었다. 그러므로 성서 히브리어 문법을 상세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히브리어 문법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 조용현 연세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17)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과 함께 표준적인 히브리어 문법 참고서라 불리는 P. Joüon의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2005) 역시 철자법(orthography)과 음성학(phonetics), 형태론(morphology), 구문론(syntax)으로 나누어져 있다.

18) W.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466-70.

19) Bruce K. Waltke and M. O' 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1; T. Longman III, *Old Testament Commentary Surve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42-43; E. C. Hostetter, *Old Testament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60; 이영근, 『히브리어 문법 해설』(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 2004), 9.